

“남의 종교 존중하자”

불교·개신교·천주교·민족종교 대화모임 가져
 종교갈등 해소 세미나 개최·공익광고 공동추진

제주 원명선원 불상파괴 등 잇따라 발생한 해군법당에 대한 종교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화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 한국종교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중진인사들은 8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종교인 대화모임'을 갖고 종교간 화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후 종교화합을 위한 후속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실장 이길용)이 주선하여 이뤄진 이날 대화모임 후 농관스님과 김상근목사 김성태신부는 발표문을 통해 "21세기를 맞는 중요한 시점에 해불사건 등이 있어 종교간 화합을 위한 대화모임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그리고 진지한 노력을 함께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이후 종교갈등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종교간 대화모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으나, 해불사

건을 계기로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간 화합을 논의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모임에는 불교측에서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 채완스님, 사회부장 농관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스님, 전국불교운 동연합 대표 지원스님, 개신교 측에서 교회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상근목사, 기독교관리회 국내선교부장 박종욱 목사, 천주교측에서 김정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회장, 주교회의 일처위원회 총무 김성태신부, 그리고 민족종교협의회 김재환 사무총장 등 15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길용 종무실장과 윤정하 종무관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영화사 유기능매장 "사찰에서 구경해 우리 농산물 싸게 사세요" 서울 영화사(주) 지 일만은 8월24일 유기능산물과 환경상품을 판매하는 '한마음' 매장을 개설했다. '한마음' 매장은 일상사농장을 비롯 강원도 호저농협 등에서 생산되는 유기능산물을 염가로 판매해 영화사 신도들의 복지와 불교도농공동체 사업기금으로 사용된다.

조계종 '본사주지 직선제' 공청회 '보완유지' '폐지' 의견 팽팽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후보지 직선제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하고 폐지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대한 종단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6일 열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가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구본사 주지 직선제의 보

완유지와 폐지론이 팽팽히 맞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범종스님(총회부위원장)은 간선제 도입을 재의했고 이은은(중앙일보전문위원)씨는 "직선이건 간선이건 본사주지의 선출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웅스님(전조계종기획실장), 손희재(참여연대사무처장)씨는 현행법의 보완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법장, 정주, 장곡, 범성, 해주스님과 홍사성(前 불교TV 제작국장)씨 등 6명의 지정토론자들도 직선제의 보완유지와 폐지를 두고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적되거나 제안된 의견들은 7일부터 열리는 제133회 임시총회에 상정할 '신중총회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임연태 기자
 (ylim@buddhopia.com)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군생활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병영에서 읽는 한편의 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손목의 단주가 위험한 작전에서 생명을 지켜준다는 믿음의 절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씨는 군불교진흥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전방 지역 군법당에 '불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역한 김씨가 군법당과 인연을 맺은 것은 30여년전. 해병대 수시과에 근무할 때 종교 활동을 하고 싶어도 후원의 손길이 미치



지 못해 마음편인 해군법당의 현실을 접하고 부터다. 이때부터 장려하는 날까지 그는 매일 봉급의 일부를 떼어내 불교의 정찰이나 법당에 봉사가 있을 때마다 남몰래 열주와 불서를 보냈다.

30여년간 그가 나눠준 열주만 해도 10만여개. 열주를 풀어 연결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족히 되는 거리다. 김씨는 열주 이외에 금강경, 찬수경, 반야심경 등 법회를 볼 때 필요한 경전과 불서도 1만여권이 넘게 발송했다.

해룡사, 속흥사, 해안사 등 김씨의 도움을 받지 않은 해군 법당은 한 곳도 없을 정도다. 또 30여년간 해군을 거쳐간 장병들이라면 김씨가 건네준 열주와 불서를 한 번쯤은 접해 봤을 것이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김씨는 지난해부터 군불교진흥회에서 불서보급을 비롯 합장주 보내기, 위문품 전달 등 군법당 후원운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불교 발전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고 싶다는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편인 무주상보시를 확실히 실천하며 큰 기쁨을 누리는 참불자다.

김주익 기자 (jkim@buddho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대리아 http://www.buddhopia.com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청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불어두 가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 마감 12월15일

△주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매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정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다협외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현대종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 체험기행

9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여주 신희사, 고달사지, 목아 박물관을 찾아가는 기행이다.

이번 기행에서는 불상을 비롯 회화·공예·민속품 등이 전시돼 있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에서 하나의 나무가 불상이 되기까지의 제작과정을 알아본다.

탑을 구성한 벽돌의 부리가 수려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다종전탑(보물 제260호)과 남한강가의 바위절벽에 위치한 정자 강월현(江月軒), 나옹화상의 입적처로 유명한 여주 신희사와 부도(국보 제4호)를 비롯해 원종대사 해진당(보물 제7호) 등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고달사지도 답사한다.

9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신희사·목아박물관·고달사지'

○출발: 9월13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비: 3만(김집 제공)
 ○인내: 구본만 학예연구원(여주군청 향토사료관)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3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성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일약품

봉은사 재정운영 '투명하게' 20면
 기도안내서 꾸준히 읽힌다 8면
 실직 여성가정에 일자리를 23면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이 가을, 한권의 책속으로 죽음 기행을 보잔다.
 "죽음의 생을 알기 위한 하나의 關門, 죽음을 읽으라! 그러면 삶이 보이리라." 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역사속의 빛나는 인물 100인의 죽음

죽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 세여자와 네로 황제와 부인의 6인 시라전 사람들 / 빗속으로 시라전 황제의 유해 캐이시르의 9인 죽움과 의 악수 / 시역을 독학한 스킨리우스와 송시경 매달음과 죽음이 남달랐던 제논과 박순신사 죽음보다는 절저한 삶 / 니체와 미스갈, 토마스 카탈라실과 소동미 예술, 그 경기와 죽음 / 정신병을 앓던 모리산, 슈만, 할랄한, 몽크 에드가 일란 프우와 보틀레르 특이유 불로델과 나역석 떠도는 자의 노래 / 짐짓과 두보 이상과 카프카 화려한 명상, 저명한 정후 / 클레오프라와 인베, 우미안과 앙귀비 사도제자와 소련제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 불교의 죽음관 특권자와 예가 공조 오상승과 양관선사 허다 테레사 등

☎ 여시야문에서도 주문을 받습니다.
 Tel : 02-737-0695

도서출판 세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연지근지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 우리옷 •

연지근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 단체복 주문시(30인 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원(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근지 전시장에 있습니다. 02)732-8552